

제7회 여성문학상 수상작 · 수기(마지막회)

여성이 남성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요?

유영선

실력보다는 오너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터라 다른 중역의 흠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94년 3월1일 내게 사표를 중용했던 기획실 담당 중역이 다른 곳으로 발령나면서 기획실은 전격적으로 해체되고 대신 홍보실이 신설됐다. 기존에 기획실 고유 업무였던 기획 업무는 인사부에서 대부분 인수해갔고 홍보관련 업무만 홍보실로 이관됐다.

물론 사보 업무도 홍보실로 이관됐다. 기획실 홍보관련 업무 종사자 14명 중 나를 제외한 전원이 홍보실로 재배치됐다. 나는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자동차판매부 소속 경기 남부지역부로 보직 없이 발령났다. 특이한 사실은 사사됨을 맡았던 남자과장은 인사부 관할인 제안사무국으로 발령 받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보팀을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94년 3월부터 이제 만 1년7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이 억울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찾아가 보지 않은 데 없고 호소해 볼만한 데는 다 해봤다. 맨 처음 회사 인사부에 부당함을 말했다 때 그들의 대답은 단 한가지였다. '회사의 인사명령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부당인사명령 속에 내포된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내게 인식시키려 애썼다. 그것은 첫째, 보직 없는 발령이니 할 일 없이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냐는 것과 둘째, 설사 네가 끈질기게 그것을 견뎌내서 할 수 없이 보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나는 공채로 입사했고 과장급이므로 근거있는 정계사유 없이는 보직을 3개월 이상 박탈할 수 없게끔 사규가 정해 있음)에 처하더라도 그동안 10년 넘게 해왔던 홍보일과는 전혀 무관한 자동차 판매영업 업무이니 머지않아 업무 무능력자로 분류될 게 뻔하고 셋째, 만약 그것까지도 어찌어찌 넘어가면 이미 관리부에서 판매부으로 전보된 직원이므로 소속이 바뀐 것을 이유로 전국에 널려있는 영업소 중 먼곳으로 마구잡이 배치한다면 내가 감히 사표 안쓰고 배겨낼 것인가 하는 엄청난 비열한 저의가 숨어 있었다.

회사의 그런 저의를 알고 나서 두번 다시 부당 전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이라는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대기업과의 긴 싸움에 들어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유례가 없었다는 1년이란 긴 기간동안 심의케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심의가 3번씩이나 지연되어 지연사유를 내게 통보해줄 지경이었지만 결국 기각당하고 말았다. 인사권은 회사 고유 권한이라 하여.

결국 이제 마지막 보루인 '법'이라는 판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변호사까지도 H그룹은 워낙 거대한 재벌 기업이라 사안이 아무리 명백하다 해도 '승소' 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한다. 지금 나는 특별히 그 누구를 미워한 다거나 회사에 대해 중주먹질 하려는 생각은 없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버린 지 오래다. 또한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회사 밖에 있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단지 기업 내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고 싶다는 소망 뿐이다. 더불어 내 사랑하는 딸을 포함해서 이 땅 위의 모든 여성들이 '성차별' 당하는 불이익의 세계에서 살지 않게하기 위해 내 판결이 조그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물론 그것도 정당한 판결을 얻어낸 다음의 일이지만.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심리를 위해 409호 법정에 한달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나는 회사의 노련한 고문 변호사의 달변에 압도 당한다.

'법'보다 '금권'이 우위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다. 법적 투쟁에서 제일 관건이 되는 증인 확보도 쉬운 일이 아니다. 10여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를 아껴주던 동료, 상사, 부하직원 모두 아직은 회사에 적응을 두고 있기에 내게는 증인이 되줄 사람은 많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대명천지에 언젠가는 정당하게 판결이 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법'이 공정하지 않다면 더 무엇을 믿겠는가 말이다.

애시당초 H그룹이 가정과 일을 병행시킨다는 좋은 취지로 기혼여성을 뽑아들었다면 끝까지 참된 뜻을 고수해야 마땅한 것이 기업 윤리 아니겠는가. 더우기 대기업이 추

구하는 기업문화가 가정과 회사를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라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임지로 기혼여성을 발령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인사 정책을 감행하는 것이 어찌 옳바르다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여성이 남성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는 전근대적인 발상 때문에 실력 있는 여성 관리자를 미련없이 내치는 이런 풍조가 '세계화'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에서 자행할 일인가 말이다.

그동안 홍보 업무 능력을 인정해서 과장까지 승진시킨 회사가 막상 홍보실이 신설되면서, 홍보 업무 쪽에서 배제시키고 홍보와 전혀 무관한 자동차 판매영업 부문에, 그것도 보직없이 서울이 아닌 지방 근무처에 발령내는 것은 여성의 능력과 승진 기회를

아예 말살해버리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명명백백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회사가 이것 저것 그럴듯한 명목을 붙여 인사조치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근로자의 현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22일 법정에서 만난 피고측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웬일인지 부쩍 소송이 늘고 있다'고, 나는 그 분께 다음의 얘기를 들려 주고 싶다.

우리에게 생애가 알려진 최초의 철학자인 '아낙사고라스(BC. 500-428)'는 나이 마흔살에 아테네에서 추방당했다. '태양은 신이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반도보다 더 큰 불덩어리'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로 말했기 때문에 추방당한 이 위대한 철학자의 얘기가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어처구니없게 들리겠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경위를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여성차별 현장의 명백한 오류가 언젠가는 바로잡아지리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같이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끝)

대기업이 추구하는 기업문화가 가정과 회사를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라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임지로 기혼여성을 발령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인사 정책을 감행하는 것이 어찌 옳바르다 할 것인가.

